

## 교수아파트 짓던 일들

류달영/명예교수, 9대 교수협의회장

내가 서울대 교수협회의 13대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 1973년이였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시대였고 서울에는 아직도 수많은 무허가 주택과 판잣집이 즐비한 가운데 7,8층짜리 작은 빌딩이 도심지에 하나 둘씩 들어서기 시작하던 무렵이였다.

교수들은 모두 박봉으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었고 제집을 못 가진 교수들도 많았던 시절이였다. 나는 상도동 높은 언덕에 울타리도 없는 비가 여러 군데 새는 목조건물에 비좁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나라 형편이 원체 가난하던 시절이라 먹고살아 가기가 어려운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체념하고 살아갔다. 교수들의 연구비가 있기는 했으나 아주 소액이었고, 그것도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분야 외에는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 무렵에는 북한의 GNP가 남한보다 오히려 앞서 있었다.

생활이 이처럼 어렵고 연구에 대한 뒷받침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으나 교수들의 민주의식만은 아주 높았었다. 단과대학 학장도 교수들이 투표하여 선출하였고, 총장도 교수들이 직선으로 선출했었다. 그러므로 교수협회의 콧대가 높아서 발언권이 컸었다. 마치 기업체의 노조위원장이 기업주를 대하듯이 교수협의회 회장은 총장에 대하여 점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압력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의 전임 회장이었던 이민재 교수는 누구보다도 콧대가 높아서 교수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여 요구사항이 매우 많았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내가 협회의 회장으로 선출이 된 것이었는데, 그것도 나 자신은 총회에 출석도 하지 않은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 당시 교수협의회 뉴스레터의 나의 권두문에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교수협회의 총회에 참석하였다라면 결코 이 권두문을 쓰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내가 대학에서 맡은 전공과목에 대한 학문적 실력도 부족한데다 각 대학의 수많은 요구를 도맡아서 해결해 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연구실에서 공부할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게 될 것을 걱정하였기 때문이다.

내 자신이 재건국민운동본부장(국무총리와 동급)까지 거쳤으면서도 정작 학내에

서는 총장은 물론이고 단과대학의 학장 한번 해 볼 생각도 하지 않았었던 것이 사실이다. 교수로서 보직이나 부설기관의 책임을 맡게되면 행정적인 잡다한 사무에 쫓기어 교육도 연구도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것을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참서도 안한 교수협회의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마당에 회장을 사퇴한다면 교수협회의 역사에 바람직하지 못한 전례를 남기게 될 것 같아서 1회에 한하여 회장직을 맡아보기로 작정하였다. 부회장에는 문리대 전광용(全光鎔)교수와 행정대의 유훈(兪焄)교수가 선출되었고, 간사에는 치대의 손성희(孫星熙)교수가 맡아서 나를 도와주었다. 특히 유훈 부회장은 천성이 원만하며 참을성도 많고 꾸준한 성격이라 성급한 나에게 좋은 완충제 구실을 해주었다. 교수이면서 저명한 소설가인 전광용 부회장은 성미가 나보다도 더 격정적인 함경도 기질이어서 그를 위해서도 유훈 부회장은 늘 적지 않은 배려를 해야 했었다.

나는 회장직을 맡고나서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교수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해놓고 물러나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첫째는, 일생동안 서울대학교에서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하고 살아오다가 정년퇴임이 된 후에는 마치 끈 떨어진 뼉박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던 교수들의 처우를 무엇보다도 먼저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20년이상 근속을 하고서 정년퇴임을 하게 되는 노교수들에게는 일괄해서 모두 명예교수로 모신다는 협회의 결의를 대학당국과 담판한 결과 이의 없이 수용하기로 총장으로부터 확답을 받았다. 단 국가의 예산이 호전 될 때까지는 보수가 없는 명예교수로 추대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것은 교수협회의 역사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업적으로 남게 되었다.

둘째는, 아파트는 전 공군사관학교 근처인 대방동에 25.7평의 13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 5층 건물 4동을 건설하였다. 박대통령이 교수아파트 건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입주자 1세대당 50만원씩 보조를 하였다. 나의 주장은 주택 없는 교수들이 영구적으로 싼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 살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으나 대부분의 교수들이 은행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서 장기에 걸쳐서 분양하기를 희망하므로 나도 부득이 타협을 하였다. 그러나 그 동의에 단서를 붙였다. 입주자는 5년간 서울대학교에 전임한 교원이 아닌 사람에게 전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는 대통령이 모든 입주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등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주공(住公)이 아파트 공사에 특별히 유의하여 탄탄하게 지었다. 나는 서울에서 수원농대로 출·퇴근하는 관계도 있었지만은 책임상 자주 현지에 가보곤 하였다. 용자금은 연 8%이자로 15년간 상환하기로 확정했다.

74년 4월 1일부 발행의 교수협회 뉴스레터의 기록을 보면 입주자 결정은 다음과 같았다. 그런데 이상의 결정을 할 때에 S대학의 이사인 젊은 교수가 수원농대는 서울에 있지 않음으로 대방동 아파트 입주를 반대한다면서 나에게 폭언을 해서 심한 꾸지람을 한 일도 있었다. 지금 그가 살아 있어서 젊은 날의 혈기를 회고한

다면 아마 미안해 할 것이다. 그런데 대방동에서 입주희망자 전원이 입주를 안해서 1동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사태가 생기기도 하였다. 반포동에 제 2의 서울대 교수아파트를 지었다.

가족이 많은 교수로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32평형 170세대 입주의 아파트이다. 대방동 아파트 1동이나 타인에게 팔아야 했던 까닭은 32평짜리 반포아파트로 다시 신청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반포아파트에는 74년 12월에 모두 입주하였다. 그 당시에는 아파트를 사서 입주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여담이지만, 아파트 건설 때문에 자주 모여서 회의를 해야했다. 참으로 속썩는 일이 많아서 교수협의회의 회장도 액땀인가보다 하고 체념을 하기도 하였다.

입주자 전원이 정직하게만 응해준다면 사무적으로 모든 일을 척척 기분 좋게 처리해 갈 수 있었지만은 많은 금액의 이해가 얽힌 일이기 때문에 적지 않게 속을 썩혔다. 사실과 다른 허위문서를 만들어 신청한 것들이 실무진에게 발각되어 사퇴시킨 일들도 적지 않았다. 더구나 청와대로부터 입주세대마다 50만원씩을 보조받게 되어서 잘못하면 회장이하 아파트 건설위원들이 누명을 쓰기 쉬운 관계로 세심한 주의를 해야했다. 임원중에는 나더러 비새는 낡은 집을 팔고 임시로 셋집을 들었다가 반포동 32평짜리 아파트에 입주하라고 권고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회장인 나로서는 그런 잔피를 부릴 수가 없었다.

회의를 마치고 나서는 우울한 심정을 풀기 위해서 술꾼인 전광용 교수를 따라서 5~6인이 그 유명한 무교동 뒷골목 목로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술을 못 마시는 나에게는 이것도 힘든 고역이었다. 술은 마시지 않더라도 술자리의 흥을 깨지 않으려는 노력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한번은 주점에서 술시중하는 처녀가 나를 알아보고 반가워한 일이 있어서 얼굴을 바로 들기가 어려웠던 일도 있었다. 그 처녀는 그 당시 베스트 셀러 1위에 올라던 나의 '인생 노트'를 친구들로부터 빌려 읽었고 신문에서 사진도 여러 번 보았는데 뜻밖에 이런 술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다는 사연이었다. '흑산도'란 소설로 유명해진 소설가인 전광용 부회장은 이런 술집에서 각종 자료를 주어 모을 수가 있었겠지만은 나는 입장이 달랐다. '인생노트' 애독자인 그 처녀가 나를 군자처럼 생각했었는데 정작 장본인을 이런 자리에서 만나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실망했겠는가? 전부회장은 술값의 본전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익살도 부려가며 아파트 건립의 스트레스를 풀었다.

그러나 그 시절에 나와 함께 일하던 친구들 중에 이미 고인이 된 분들도 있으니 세상일이 꿈만 같다. 오늘에는, 대방동과 반포 아파트에 그대로 남아 사는 교수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당시 우리 실무진들의 고충을 기억할 분들이 있을 리가 없다.

1년에 한번씩 서울대 총장은 명예교수들을 초청하여 오찬을 베풀고 만수무강을 축원한다. 해마다 명예교수들이 늘어나서 이제는 교수회관 강당이 꽉찬다. 그러나

그 명예교수들에 대해서 정부는 아직까지도 단 몇 만원의 연금도 주지 않고 있다. 또 그들의 소중한 학덕과 능력을 정년퇴임과 동시에 쓸데없게 만들고 있으니 교수협의회장을 역임한 노구의 나로서는 감회가 무량하다.<참고 : 이 회고록은 1992년 교수협의회보에 게재내용입니다.>